

세월호 11년... ‘가라앉은 진실, 표류하는 기억’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

정부 차원 조사위원회 세번 구성
내인설·외력설...원인 규명 못해
대통령 7시간 공개 요구도 묵살
‘기억공간’ 조성사업도 지지부진
은폐·정쟁 속 혐오·2차가해 발생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구조 신호가 전달된 이후에도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고, 이 와중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먼저 탈출했다. 배 안에 남아 있던 304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172명만이 구조됐다.

참사 직후부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지만, 사고 전후의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내인설과 외력설의 충돌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 없이 갈등만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가장 먼저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그해 3월 활동을 시작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반발과 청와대 및 정부의 조직적



세월호 참사 11주기. 참사에 대한 진실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가의 약속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15일 광주 서구청 앞 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설치한 노란 바람개비가 봄날 꽃처럼 수 놓고 있다. 김양배 기자

비협조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예산 집행 지연, 조사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 등으로 인해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2016년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2017년 4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바탕으로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 원인을 규

명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선체조사위는 침몰 당시의 조타기 고장 가능성, 외부 충격 여부, 선박의 복원성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지만, 조사위 내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단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조사위는 내인설과 외력설을 각각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채 2018년 8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듬해인 2018년,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구성됐다. 사참위는 침몰 원인에 대해 “조타 장치 일부인 솔레노이드 밸

브의 고착이 급격한 선회의 직접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외부 변형 및 손상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또 다시 침몰 원인을 단정하지 못한 채 2022년 6월 종료됐다.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심판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장치 고장, 복원성 부족 등 선체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심원은 외력설에 대해서는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인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의 행적이 진실의 핵심이자 국가 책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기억공간’ 조성 사업 또한 1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만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6면**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광주공항에 몽골·베트남·중국 노선 추진”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운항노선·일정 등 구체적 명시

광주시는 15일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폐쇄기간이 7월까지 3개월간 재연장되고 로드맵 발표도 지연됨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따른 대체 공항으로서 시민 항공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 생존권 위협 해소를 위한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에는 이 같은 추진배경과 함께 항공기 운항노선, 운항일정, 운항규모, 항공기 기종 등 운항개요가 담겼다.

운항일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운항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엔지(중

국), 광주~장자제(중국) 등 노선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 시간은 국내선 운항시간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각 출발 1편, 도착 1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는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CIQ) 등에 관한 협의 기간을 거쳐 항공안전 확보 가능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을 판단해 광주시에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취항 허가 승인을 해주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 등 시설 정비 후 항공사와 함께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신청서 제출 이후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선통합항공교통국장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승인과 운항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sangjaeong@jnilbo.com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물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